

# Sri Lanka +

May 

RaonAtti 3<sup>rd</sup>

# 글 순서

승찬 글

선화 글

기연 글

금선 글

하현 글

랑카팀의 May

# Seung chan

+ 이기적인 나 그리고 행복한 나

+ 이미지 퀴즈

# 이기적인 나 그리고 행복한 나

이런 글을 쓸려고는 3월 출국 전부터 고민했었다. 하지만 난 합격자 명단을 보고, 국내 훈련을 받고, 공백기 1개월, 3월 발대식, 그리고....현지 생활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마음과 생각에 대한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 옮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스리랑카 1%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 스리랑카 1%?

### [첫 번째 스리랑카 1%]

난 모라투와 YMCA의 특정 멤버들과 안면이 있고, 오가다 인사를 주고 받는다. 그들은 음식점에 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매니저에게 주문하고, 마음만 먹으면 매일 술과 음악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집은 기본 2층이고, 화장실은 기본 2칸, 넓은 마당은 기본이다. 선풍기, 모바일폰, TV, 자동차까지 있다.

그들은 [첫 번째 스리랑카 1%...]

### [두 번째 스리랑카 1%]

난 모라투와 YMCA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중 한 극빈층 마을에 방문하고 있다. 그들은 내 친구이기도 하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서 나보다 한참 어린 중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다들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러 나간다. 그들에게는 집주소가 없다. 그들은 부모도 없기도 하다. 그들은 4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인데 화장실은 오직 2칸뿐이다. 그들의 집은 비가오면 범람하는 강물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폐쇄적인 국가 스리랑카에서 노천 목욕탕을 이용한다. 그리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더 심각한 마을이 있다. 그들은 민족갈등이 심각한 현지 스리랑카에서 타밀족이다.

그들은 [두 번째 스리랑카 1%...]

### [세 번째 스리랑카 1%]

난 모라투와 YMCA에 있는 휴먼 코디네이터 웨랑거와 이제는 정말 친한 사이이다. 그는 [두 번째 스리랑카 1%]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는 아내 에랑가와 함께 [두 번째 스리랑카 1%]를 위해 개인 시간을 줄이고 수업을 함께한다. 이 부부는 항상 '모든 사람', '공유',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 이 부부는 아이도 없다. 이유를 물어보니 웨랑거 왈..."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라고 했다. 그녀와 그 또한 '1%로 살아가는 스리랑카인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녀와 그는 [남다른 스리랑카의 1%...]

## 이기적인 나?

한국에서 나의 삶 또한 대한민국 1%의 삶을 열망하는 젊은이 중 하나였고, 그 욕심이 넘쳐 '라운아띠'에 지원했고, 이렇게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스리랑카의 1%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나는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숙해지고 싶다. 라운아띠 활동이 반이상 끝나가는 지금 스리랑카에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다만 그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전부다. 나는 이렇게 그들을 보고 느끼면서 나만의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난 이기적인 것 같다.

스리랑카 1%. 정말 나의 마음과 정신의 전환점이라고 생각 될 정도로 느낌이 남다르다.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나는 스리랑카의 1%를 오감으로 느끼고, 고민해서 또 다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비슷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나와 비슷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라운아띠 4기가 기대되기도 하고, 귀국 후 1, 2기들과 함께 5개월짜리 안주거리를 공유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나는 인생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게 되어 행복할 따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자신의 삶이 1%가 아니어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지는 개인적인 편차에 불과한 것 같다.

## 이미지 퀴즈

이 보고서를 읽게 될 선배님들을 위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랑카생각 하세요~^^

YMCA멤버 알아 맞추기!!!

1. 회의 도중에 손가락을 입에 자주 넣는다.  
회의의 모든 내용을 주도한다.  
심슨가족의 아들과 흡사하게 생김.  
누구일까요?
2. 생김새가 예수님과 흡사하다.  
매론 로빈소 크로소 같기도 하다.  
4차원이다.  
누구일까요?
3. 중학생과 같은 머리스타일

몸매가 아주 슬림하다.

영어의 표현 중 "sorry?"의 억양과 목소리가 특이하다.

누구일까요?

4. 팀멤버 5명 중에서 특히 여성멤버를 더 좋아하고, 때론 장난으로 때리기도 한다.

이름이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었다.

종교에 대한 편애가 때론 있기도 하고, St' Sebastian Church에서도 일한다.

누구일까요?

5. 5:5가르마가 주된 머리스타일(최근 올빱으로 바꿈.)

싱할라로 "니깡(그냥)"이라는 표현을 자주 씀.

체중은 38kg

누구일까요?

6. 마초적인 느낌이 아주 강하다.

알코올을 아주 좋아한다.

사람을 재미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불독을 닮았다.

누구일까요?(어렵죠? 보드멤버 중 한명입니다.)

7. YMCA에서 상주하고 있는 개와 아주 흡사하게 생겼다.

첫만남은 아주 수줍지만 시간이 흐르면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회의 때 거의 말없으나 한번 시작하면 빠르고 많아진다.

누구일까요?(어렵나요? 참고로 연임 회장입니다.)

8. 칠드런스 클럽의 짱이다.

훈남이고, 마이클 잭슨을 좋아한다.

나이는 15살입니다.

누구일까요?

9. 한국환율과 흡사한 성격으로 오락가락해 우리를 자주 힘들게 한다.

"responsibility & carefully"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쓴다.

체형은 옆모습이 '아얀너'와 흡사하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도 있죠....(2기한테는 너무 쉽겠다.)

누구일까요?

10. 유스 클럽에서 장동건이다.

코리안 클래스와 체육관에 자주 보인다

키가 작아서 아쉽지만 몸매는 good~~~~~!

누구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선배님들 다들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나름 최근3년간 YMCA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올린 것입니다. 1기 선배님들은 좀 힘드실 듯...^^정답은 다음달 보고서에 제 글 부록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달에 뵈요~

# Sun Hwa

+ 우리사회의 소수들, 외국인 노동자들

# 우리사회의 소수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외할머니댁은 경기도 안산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나는 외할머니댁을 가려면 두시간 정도를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 엉덩이가 뜨뜻한 4호선을 타고 가면서 꾸벅꾸벅 졸다보니 어느새 사당을 지나고 대야미, 상록수 같은 낯선 역 앞에 도착해 있다. 아직 발전이 덜 된 이 곳에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논밭과 푸른 자연, 그리고 짓고 있는 건물들이다. 서울에서 벗어났구나.. 싶으니 지하철 맞은 편 의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피부가 우리보다 검다. 옷차림도 무언가 초라하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삼삼오오 모여서 지하철을 타는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안산역에 가까워질수록 지하철 안에는 노란 사람보다 검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들은 모두 아시아의 각국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언제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본 적이 있던가? 그들은 나에게 외모가 다르고 후줄근한 옷을 입은, 그저 이방인이고 경계의 대상일 뿐이었다. 왠지 한국 사람들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처럼 느껴졌던 그들이었다.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거나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짓는다는 일은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요즘 내가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하고 있는 일이다.

현지인들은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쑥스러운 미소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무표정하다가 내가 인사를 하면 아주 환한 미소로 답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은행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도 말동무를 할 수도 있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과 게임을 할 수도 있다. 빵 가게나 피씨방 주인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바닷가에서 옆에 있던 모르는 아저씨와도 웃으며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들은 검은 피부와 짙은 쌍꺼풀, 높은 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노란 피부와 작은 눈, 낮은 코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건 전혀 상관 없다. 심지어 그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해도 상관 없다. 우리가 싱할라어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상관 없다. 간단한 단어와 몸동작, 그리고 표정만으로도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스리랑카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서 나는 이 사람들의 친구들인데, 한국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다르지 않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내가 마주쳤던 외국인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가족과 친구와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나의 친구들이다. 싱할라어로 말을 걸면 놀라면서 너무나 좋아하던 순박한 그 사람들이다.

YMCA의 YOUTH CLUB에 친구들이 많다. 산지와, 쿠산, 니산살라, 수데쉬...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웃고 떠드는 이 친구들 역시 언젠가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거리를 돌아다닐 지 모르는 일이다. 그 때 이 친구들이 겪게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부당대우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다.

3개월 전 안산의 지하철역에서 예쁜 옷을 입고 뽀족 구두를 신고 외국인 노동자 사이를 거만하게

걸어다니던, 아주 작고 어리석었던 내가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언젠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피부가 노랑고 눈 작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살고 있는 차별 없고 평등한 '코리아' 가 되었으면 한다.

My son is working in Korea

길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이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것.

# Ki Youn

+ 나눠먹기

+ 엑스오엑스오

# 나눠먹기

종교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특별히 신봉하는 종교가 없는 나로서는 전통적인 불교국가, 스리랑카에서 더욱 말이다. (70%가 넘는 사람들의 종교가 불교이고 카톨릭, 힌디 순이다.) 현지 달력에는 한 달에 한번 빨간 날인 'Poya Day'가 표시되어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부처님 오신 날이 매 달 있는 셈이다. 달마다 기념일이 있다면 5월은 얼마나 더 특별하겠는가! 바로 '웨식데이'로 일주일간 화려한 전등과 장식이 온 도시를 뒤덮고 곳곳에서는 단살이 이루어진다.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베푼다. 불교의 보시 개념이다. 식당에서 자리를 마련해 두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길거리에 가판을 만들어 음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 단살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이다. 누구나 배가 고프다면 단살을 하는 식당 앞에 줄을 서면되고, 목이 마르면 먼저 권하는 음료를 사양 말고 받아 마시면 된다. 카레 밥, 밀크커피, 오렌지 주스, 수박 등 단살을 하는 대상도 다양하다.

문득 떠오른 건 라마단. 이슬람교 신자들은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간 해가 뜨는 시간에는 물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해가 지고 난 오후 6시 이후에 사원에 모여 기도를 드린 뒤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왜 라마단을 하던지 간에, 라마단이 끝나면 대규모의 기부금이 모인단다.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단살과 라마단. 한 쪽은 나누어 먹고 다른 한쪽은 함께 굶는다. 살면서 나눠 먹는 일이나 가끔씩 식사를 거르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작정하고 일을 치는 건 전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음식을 나눠 주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강력한 종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본능에 역행하는 행위도 달게, 기꺼워하는 것 같다. 두 가지 다 방법은 다르지만 행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종교를 넘어서 어디서나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 하려고 하는 것은 같지 않겠는가.

우리 팀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라투와 YMCA youth club은 람부커나 지역 YMCA youth club과 교류를 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5월 모임으로 다 함께 람부커나에 다녀왔는데, 마침 '웨식데이'기간이라 단살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유난히 한산한 랑카의 도로를 달리다가 문득 차가 막힌다 싶으면 근방에 어김없이 단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살을 받기 위해 길가던 차들이 멈춰서기 때문이다. 늦음 밤 람부커나에서 돌아오는 길에 타이어 펑크가 나서 길에서 주린 배로 타이어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때 단살 커피를 마시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커피 가판 앞에서 봉고(스리랑카전통 북)를 두드리며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음악과 자동차 보조등을 깔고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었다. 어디서나 흥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요번에는 정말이지, 커피를 수줍게 나눠주는 소녀들이나 맡겨둔 양 더 달라고 받아 마시며 춤추는 사람들 모두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신나 보였다. 썸바축제를 비할까, 그때만큼은 단살도 축제처럼 느껴졌다.

알다시피 랑카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빈부격차 또한 심하여 길거리에 걸인들은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단살로 배고픔을 달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불교가 국교로 지속되어 왔으면 이런 진 풍경이 연출 되었을까? 하나의 종교로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 내는 그들을 문화가 새삼 부럽기도 하였다. Lanka Charming!

# 엑소엑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스리랑카를 비교했을 때 스리랑카는 십 분의 일 수준이지만 교육 수준은 한국보다 선진화 되어있다. 선진 교육 마인드를 가진 커리큘럼이다. 한마디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교복과 일체 필요한 물품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오직 필요한 것은 책 몇 권뿐이다. 식민지 시대 때부터 가져온 좋은 교육정책에 그네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하다. 부자들을 위한 사립 학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의외의 면이라 생각한 걸 보니 나의 무지로 랑카라는 국가대해, 우리나라보다 못 할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OLPC라는 운동이 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펼치고 있는 것인데 'One Laptop Per Child' 아이 한 명에게 노트북 한 대씩을 나눠주자는 뜻이다. 노트북의 이름은 '엑소'. 귀여운 외관에 장난감 같은 이 노트북은 상업성을 띄지 않고 MIT 교수진과 학생들에 의해 개발되고 1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부금을 모아 만들어 지고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태양열 충전방식을 사용하고 인터넷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 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다. 단순한 노트북이 아닌, 엑소 자체가 '교육의 기회'를 의미 하는 것이다. 처음 이 운동에 대해 알았을 무렵이 라온아띠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쯤 이었다. 나 스스로 내가 해온 봉사 활동에 대해 되돌아 보며,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천재들이 부럽기도 하여 생각이 많은 때였다. 스리랑카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아직 랑카는 엑소 미 배포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랑카에 가게 되면 수혜지역이 되도록 힘 써보고 싶었다.

막상 랑카에 와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 이 아이들이 랑카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학교에 진학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생계 전선으로 뛰어들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나가는 강가 빈민촌 아이들이 그러하는데, 이 곳의 여자아이들은 심지어 20세가 되기 전에 일찍 결혼을 해 버리기도 한다고 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환경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맹자의 엄마로부터, 우리나라의 치마바람 어머니들로부터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고 극도로 산만한 이유는 아마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매 수업시간 마다 나의 근심거리 중 하나를 말하자면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꾸중을 할 수도 없고, 귀여운 장난에 집중시키기가 어려워 난감하다는 것이다. 엑소의 배포 후 아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노트북을 관리할 환경도 스스로 학습을 할 집중력도 없어 보인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이다. 곁에서 공부를 봐주고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게 흥미를 불러 넣어 줘야 한다. 옛날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 몇 날 밤을 기도 드렸다고 하는데 '스승님' 까진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선생님 만으로도 충분 할 것 같다.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2달 남았다. 글을 쓰다 보니 촉박한 마음이 든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는 5개월이 참 짧기도 하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을 것 같다. 전엔 몰랐던 새로운 방면으로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내일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이들과 신나게 놀니다! 사랑을 담아 엑소 엑소 라온아띠 3rd !

# Geum Seon

+ 보고또보고

+ May be...

# 보고보고

라온아띠에 지원할 때 스리랑카에 지원한 이유는? 이유가 없었다. 단지 난 말레이시아의 장애인 프로그램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원서를 작성할 때 스리랑카로 맘이 바뀌었었다. 뭐 사실대로 말하자면 맘이 바뀌었다기 보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나라의 이해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서를 쓸 수 없어서 즉흥적으로 쓴 나라가 스리랑카였다. 이게 내 운명이었을까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난 지금 스리랑카에서 살아가고 있다.

## 음식의 벽에 부딪치다

스리랑카에서 주로 먹는 건 커리다. 한국에서 먹는 카레랑은 완전 다르다. 처음 커리를 손으로 먹게 되었는데 난 커리를 빼고 밥만 먹을 수 밖에 없었다. 나에게 커리 냄새가 너무 심하게 와닿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이 나라를 받아드릴 준비가 덜 되어있었던 것 같다. 이 나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다 먹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물론 정말 안 먹을 수는 있는 건데 나는 처음 손으로 먹는 음식이 그냥 싫었던 것 같다. 지금의 난 고루고루 먹을 수는 없지만 차츰 다양하게 먹어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었고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중이다.

## 사람들의 냄새

그 나라의 고유의 냄새가 있는 건 알고 있었다. 스리랑카는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사람들 냄새가 더 심하게 풍겨온다. 처음에는 암내 비슷한 냄새에 약간의 구역질이 났지만 나의 코는 적응을 끝낸 상태다. 여기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그런 냄새가 나는 걸 알고 배려의 차원에서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곳 사람들은 향수가 땀하고 섞이면 어떤 더 큰 냄새 공격을 해올지 알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내 코는 잘 적응했다.

지금 다시 지원서를 읽어보았다.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원했던 건? 막연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현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긴 하다. 이걸 2개월 더 남은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7월 보고서로 패스~!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이걸 정말 내가 원했던 것. 편견 없이 사람을 보고자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친구가 생긴 것 같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바라봐주는 것 이걸 정말 많이 배운 것 같다. 그리고 더 배우고 싶다.

6월 보고서는 뭘 쓸까 고민이다. 하하하

# May be...

4월 돌아 보고서를 쓴지 얼마 지난 것 같지 않는데 벌써 5월 보고서를 쓰고 있는 내 자신이 기특하면서도 씁쓸한 느낌이 든다. 이제 곧 이 나라에 온지 100일이다. 100일이면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획기적인 기간이다. 그 동안 난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했을까? 4월에도 그렇듯이 5월은 특히 생각이 많았던 달 이었던 것 같다. 뭐 6월이 더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고 7월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 5월은 미열이 매일 있을 정도로 생각이 많았다.

지금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이지만 이번 주는 많이 힘든 주였다. 스텝리랑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을 축제처럼 즐겼다. 물론 우리 딱 3일만 쉬었는데 쉬는 날에 다른 지역에 청년들과 교류가 있어서 잘 쉬질 못하였다. 이사는 간다고 한지 한 달이 넘었고 가기로 한 집마저 계약이 안 돼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집은 정이 떠난 지 오래고 우기를 겪고 집에 곰팡이들이 번식하기 시작해서 색이 변하고 있다. 옷 냄새도 점점 변하고 있다. 개미들은 우리들의 먹이를 공격한다. 온통 변하고 있다.

이 곳 사람들. 스파이들이 참 많다. 우리들이 어딜 가면 무조건 코디네이터한테 전화부터 해준다. 온통 스파이더맨 천국이다. 우리 스파이들의 신상명세서를 만들고자 했지만 스파이더맨들이 너무 많아서 만들질 못했다. 그냥 모라투와 전체가 스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무실 사람들에게도 별명을 지어줬는데 씹뻐은 하는 짓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너무 중학생 같아서 '중딩'이고 5월에 결혼해서 대딩으로 승진시켜줄까 고민이다. 와루니라는 오피스 걸이 있는데 입이 많이 튀어나왔고 이에 철사를 끼고 있어서 별명이 '교정'이다. 인권선생님 웨란거는 남자인데 손톱이 길고 머리카락이 길다. 그래서 '손톱언니'이다.

코디네이터의 첫 번째 별명은 '민수'다.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려고 너무 그래서 막 부르는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다. 그러나 지금 별명은 참 많다.

'택조'- 뭔가 얘기할 때 자기가 맘에 안 들면 입부터 나온다. 그래서 양택조 아저씨를 살짝 인용했다.

'배돼지'- 보면 알 것이다. 이 별명이 왜 생겼는지.

'개쇼카'- 그냥 성질 날 때 가끔씩 부른다. 입에 착착 붙어서.

'행보관'- 군대다녀 온 남자들은 알겠지만 행보관이 하는 일은 감시하고 상사한테 잘 보일라고 열라 애쓰는 사람이다. 민수 또한 그렇다. 모든 건 다 자신이 알아야 하고 절대 쉬는 걸 못 본다.

요즘 민수는 한국에 가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한다. 민수의 바람은 알파로미오 차를 사고 집을 두 채 더 사는 것, 그리고 일하지 않고 편히 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민수의 꿈이 이루어질 지 모르겠으나 배는 더 나올 것 같다.

Maybe 이 곳에서 난 꿈을 꾸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으리라 생각도 못

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건 2010년 5월 현재 난 스리랑카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것.

# Ha Hyun

- + 비 내리는 5월
- + 버스 안의 만남
- + 크리켓 친구들
- + 2기 선배의 쪽지

## 비 내리는 5월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는 5월이었다. 덕분에 시원하고 습기 없는 스리랑카의 날씨를 잠시나마 만끽 할 수 있었다. 평소엔 비가 안 와도 비 맞은 것처럼, 세수 안 해도 세수한 것처럼 지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 냄새에 대한 누나들의 따뜻한(?) 조언을 새겨 들었지만, 지독한 냄새 나는 티셔츠를 입고 한나절을 그냥 버텼다. 그러다가 5월 말쯤, 뜨거운 태양 아래 벽화 작업을 하다가 이 냄새는 아니다 싶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YMCA에서 샤워를 한다. 작렬하는 햇빛 덕분에 빨래도 널면 금방 마른다.

비가 많이 온 5월 달, 난 아팠다. 발에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인데, 손톱만한 작은 구멍 안에 고름이 가득 차서 걷기 힘들 때도 있었다. 발에 상처가 날 때마다 고름이 차서 조금 고생했다. 빗물 속을 지나가서 고름이 찬 거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하루는 YMCA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푹 잤다. 형, 누나들이 중간 중간에 집에 왔다고 하는데, 온 기척조차 느끼지 못하고 깊이 쿨쿨 잤다. 하루 종일 깜깜했던 사방. 그리고 부드러운 죽. 하루 푹 자고 나니까 정말 몸이 개운했다. 작은 상처에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 조금 충격이었다. 아프면 무조건 참고 운동해야 했던 생활에 익숙한 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형 누나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하루 만에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다. 여전히 상처 부근에 파리가 많이 달라붙어 아무는데 오래 걸리는 중이지만, 건강하게 즐겁게 하루 하루 보내는 중이다.

## 버스 안의 만남

버스 안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던 한 남자.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아주 잘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문화를 전공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일 했어요?" 라는 내 질문에 긴 답변을 했다. '한국어 조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마지막에는 '너무 기분 나쁘게 들진 마세요. 하하하하'

그는 현재의 대통령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작년 5월에 내전을 끝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미디어를 많이 조작한다고 한다. UN이 내전 상황에 대해 얼마나 사상자가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을 때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건 자신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는 쪽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쓰나미 피해가 심각했을 당시, 피해 가족들에게 집을 주는 대신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그는 다음 달에 일본에 가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국에 가서 학위를 따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에 쓰나미 피해 가족들이 집을 얻을 지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의 메일 주소를 받고 그는 버스에서 내렸다.

힘있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의 영어실력과 미래계획에 감탄하여 외국유학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건 사실이다.

콜롬보에서 돌아오자마자 강가의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 평소보다 많이 늦었는데도 반갑게 맞이 해주었다. 세한이 승찬이 형과 나를 끌고 자기네 집에서 수업을 하자고 했다. 조그마한 아이가 빗

자루로 쓰는 모습이 기특했다. 세한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집이 안 좋다고 했다. 돈, 작은 집 괜찮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라는 싱할라어를 알아 들었는지 어머니는 크게 웃는다. 그리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익살스럽게 몸으로 표현한다. 다 괜찮다고 한다. 아들 1명이 하늘 나라로 간 것도 다 괜찮다고 한다. 개구쟁이 세한, 반달 같은 그 눈웃음이 생각난다.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가의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 아이들과 그 식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손을 잡고 웃음 소리를 내며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들, 손짓 몸짓 발짓 다 하면서 대화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 그 순간들이 날 더 아련하게 만든다.

## 크리켓 친구들

스리랑카 림을 마신 다음날,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다. 속도 메씩거리는 것이 다행히 토는 하지 않았다. 툭툭 부은 얼굴로 터벅 터벅 천천히 걸어야겠다 싶어 물 한 통을 들고 나갔다. 뜨겁게 작렬하는 태양아래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배가 허기져서 바닷가 앞 가게 에서 빵과 사이다 먹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지 고민하려고 하는데, 자꾸 옛 생각을 했다. 이런 농담을 했었지, 정말 자지러지게 웃었는데...바닷가에서 비 맞으면서 맥주 한 캔씩 마시기도 했었지...어떤 일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했었지...서로 달래주기도 했었지...싸울 뻔해서 서로 등 돌릴까봐 두렵기도 했었지...회의하면 자주 다른 곳으로 썼지...농담을 참 많이 해서 아쉽기도 했었지...다 추억이 되고 있었다.

계속 걸어도 어질어질해서 앉을 곳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YMCA 식구인 Mr. Q가 있는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은 닫혀있고, 그 주위에서 크리켓을 하고 있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조용히 크리켓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맨날 꼬마 아이들이 크리켓 하는 것은 보았지만, 내 또래의 친구들이 크리켓 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공으로 의자를 찍고 다시 송구하며 달리기를 하는데 힘이 넘쳐났다. 크리켓 방망이, 의자 하나, 테니스 공 하나면 몇 시간 동안 놀 수 있었다.

5분이 지났을까, 키 크고 엘비스와 비슷한 구렛나루를 기른 22살의 George가 내게 다가왔다. 여기에 온 이유를 물어보았다. 아시아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다, YMCA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다, 나무심기, 페인트 칠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상당히 관심 있게 듣고 크리켓을 같이 하자고 했다. 전날 먹은 술이 아직도 깨지 않아 그냥 앉아 있었는데, 여러 명이 권유하길래 크리켓을 같이 했다. 술 먹고 어지러워 힘이 없었는데 크리켓을 하고 나니 개운해졌다.

Mr. Q가 있는 교회의 Youth club 친구들은 총 35명이라고 했다. 대부분 21살, 22살이라고 한다. 작년 9월에는 교회에서 돈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안경 프레임 150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베트남 팀처럼 현지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활동하는 것도 재미 있을 것 같다. 다음에도 크리켓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다.

## 2기 선배의 쪽지

캐비닛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쪽지 하나...아쇼카에 의하면 2기 선배들의 자료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일빠로 대답해야지. 근데 정작 질문을 던진 너는 뭐가 제일 두렵니. 내가 지금 두려운 건. 지금 내가 갖고 있고, 품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꿈들이 한 때의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 근데 사실 지금은 이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 ㅋㅋ 예전에 저게 정말 두려운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생각나길래 썼어. 또 두려운 건 살 찌는 거 ㅋㅋㅋㅋㅋㅋ'

언제부터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단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면 단순해지려고 노력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쪽지를 읽었을 때 마음이 뭉클해졌다. 웃기기도 했고. 그리고 쪽지의 주인공을 다만 추측만 할 뿐이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사람? 가기 전에 2기 선배들과 많이 이야기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들 흥미진진하다.

스리랑카에 오기 전에 태권도 도복에 대해 고민했던 적이 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흰색 사룡을 개조해서 띠를 묶으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사룡으로 도복을 만드는 것은 정말 무리였다. 집에서 사룡 입고 발차기 하려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다. 그래서 태권도 교실에서 아이들은 편한 복장으로 태권도를 배운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태권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한다. 승찬이 형과 함께 상상을 한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배워서 품새와 발차기를 부모님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하는 것이다.

가끔씩 상상을 한다. YMCA에서 어떤 공연의 장을 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드라마 공연, 태권도 공연, 춤 공연, 노래 공연을 하는 것이다. YMCA Children club과 Youth club이 함께 만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 Lanka, May!

+ 승찬

+ 선화

+ 기연

+ 금선

+ 하현









